



이치로, MLB 최다 타이 8년 연속 100득점

송고시간 | 2008-09-27 19:16











김남권 기자 기자페이지

이치로, MLB 최다 타이 8년 연속 100득점

(서울=연합뉴스) 김남권 기자 = 미국 프로야구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본인 `타격기계' 스즈키 이치로 (35)가 8년 연속 100득점을 올려 메이저리그(MLB)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.

이치로는 27일(한국시간) 시애틀 세이프코필드에서 열린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홈경기에서 3회 안타를 치고 나가 후 속타로 2루까지 진루한 뒤 3번 타자 라울 이바네스의 우전안타 때 홈을 밟아 대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.



이전까지는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강타자 '철마' 루 게릭이 유일하게 100득점 이상을 8차례 기록했었다. 다만 게릭이 양키스에서 1927년부터 1937년까지 11시즌 동안 이 기록을 달성한 데 비해 이치로는 시애틀에서 뛴 8시즌 동안 연속 해서 100득점을 달성함으로써 대표적 `호타준족'임을 유감없이 과시했다.

이치로와 게릭은 이와 함께 한 시즌 `100득점-200안타'를 8차례 기록한 선수라는 공통점도 갖게 됐다.

이치로는 이날 오클랜드에 10-8로 승리한 직후 "팀의 선두타자 로 해야 할 일은 출루한 뒤 득점하는 것이다. 그런 점에서 200안 타와 100득점은 좋은 기록"이라며 최근 팀원들과의 불화설을 의 식한 듯 "팀 동료에게 감사하며, 특히 라울 이바네스에게 감사한 다. 그는 이 기록달성의 공로자"라고 공을 돌렸다.

south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08/09/27 19:16 송고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





핫뉴스 →

박진,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"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"

'왕좌의 게임' 출연배우,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로체포

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...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

다섯식구 평균키 203cm...美 가족 '최장신' 기네스북 등재

"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" 2015년 파리 테러범...

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...여왕 "양국...

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, 뉴욕 변호사 시험 또...

기원전 2~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..."가장 오래...



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

현장 영상 →

▶ 01:1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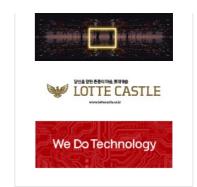
▶ 02:22

[영상] 압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...누가 학대했나 [영상] 곡사포 수송헬기·장갑차...美, 꺼렸던 무기들 [영상]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뜴

결국 우크라에

링컨 등 후보군"

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



에디터스픽 Editor's Picks

● 영상

▶ 01:59

[영상] 윤석열, 안철수 '패싱' 질문에 "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"

● 뉴스

尹당선인·安위원장 만찬 회동..."공동정부 한치의 흔들림 없

尹 당선인 "韓, 위상 맞게 외교정책 강 화...美와더 강력한 동맹"

'검증의 시간' 시작됐다...한동훈, 청문회 준비 돌입

"'의학에 뜻' 정호영 아들,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"

댓글 많은 뉴스

김건희 여사 팬카페, '악성 댓글' 누리꾼들 경 ☐ 151 찰에 고발

2 '유퀴즈' 尹당선인 출연 논란..."프로그램 취지와

3 정호영 자녀,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☐ 61 대병원 자원봉사

4 두문불출 이재명, 이발·염색...조기등판론 속 활

5 문대통령, 손석희와 대담...靑 "임기 5년 소회 밝 ⊕ 40 힐 예정"

뭐하고 놀까? ## 😛 →



















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

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#D 그래픽 **뉴스 상품**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

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**출판물**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

뉴스+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.톱뉴스사설 이시각.헤드라인 **광고** KTX.열차 AREX.공항철도 모바일 P.C.홈페이지 출판물

 모바일뉴스
 모바일웹
 모바일웹
 보도사진
 이미지
 그래픽
 동영상
 인물

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**관련사이트**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(K-ODYSSEY) 채용 IR클럽 #홍

계약사/제휴문의

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

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(02-398-3000) 사이트맵

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| 등록번호 문화,나00009 | 등록일자 1980.12.29 | 발행일자 1980.12.29 | Tel. 02-398-3114

(C) [대표이사]성기홍 [편집인]조채희

Yonhapne